‘광주 곳곳이 예술축제’…31개 파빌리온 개막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파빌리온이 양림·동명동 일대를 비롯한 광주 전역에서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올해 파빌리온은 총 31개 국가·도시·미술기관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다. 파빌리온은 국내외 미술 및 문화기관의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2018년 3개 기관이 참여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열린 제14회 때 9개 국가로 확대됐고, 올해 15회 때 31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메리카 파빌리온 개관식이 5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려 관람객들이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아세안·아메리카·아르헨티나·아프리카 등 전 대륙 참여
역대 최대 규모…본전시와 공명하며 색다른 매력 발산

파빌리온은 광주와 국제 동시대 미술계의 교류를 도모하는 실험의 장으로 다양한 창의적 주체가 참여해 서로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 본전시와 함께 공명하면서도 다른 각도의 시선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구축해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지난달 30일 아메리카 파빌리온 개막을 시작으로 페루·스웨덴·일본·폴란드·캐나다·오스트리 파발리온도 잇달아 개막식을 하며 8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아메리카 파빌리온은 ‘율동적 파동’을 주제로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현대미술팀이 현시대에 아시아미술을 선보이고 미국에서 아시아미술관이 가지는 의미에 질문을 던진다. 광주비엔날레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메리카 파빌리온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아메리카를 대표해 국제 무대에 나섰다.

특히 5·18기념재단의 창립 30주년과 겹치는 점도 전시의 의미를 더한다. 이번 전시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의 희생과 회복력에 존중을 표한다. 홍콩·이란·요르단·한국·일본·베트남·튀르키예 출신의 여성, 퀴어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항쟁과 소란, 율동적 파동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에 집중한다.

동구 ‘김냇과’에서 열리는 페루 파빌리온은 ‘끝없이 감기고 풀리는 실타래’를 주제로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체성의 본질을 탐구한다. 방문객들은 전통적인 경계와 선입견에 도전하는 풍부한 시각적 서사를 마주할 수 있다. 페루 파빌리온은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만난 강시장과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페루 대사가 문화교류 확대를 약속한 데 따른 뜻깊은 성과다.

스웨덴 파빌리온은 ‘분리할 수 없는 거리’를 주제로 동구 ‘충장22’에서 열리며, 인류와 자연세계의 교차점과 근접성을 탐구하는 8명의 스웨덴 기반 예술가들을 한데 모아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일본 파빌리온은 ‘우리는 (아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를 주제로 동구 갤러리 ‘오브 람’와 ‘혜윰’에서 열린다. 후쿠오카시는 광주 시내 두 장소를 무대로 한국·일본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다룬 신작을 발표한다.

남구 ‘이이남스튜디오’에서 열리는 폴란드 파빌리온은 ‘정적 쾌락’을 주제로 진행된다. 폴란드 파빌리온을 방문하는 관객은 시간을 가로지르는 작품의 단면 속에서 서로 다른 과거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재적 주제를 만나게 된다.

캐나다 파빌리온은 ‘고향과 또 다른 장소들’을 주제로 남구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인 작가들과 캐나다의 북극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섯 명의 이누이트 작가들이 쌓아온 관계를 기록하는 독특한 협업의 결과를 전시로 선보인다.

오스트리아 파빌리온은 남구 ‘이강하미술관’에서 펼쳐진다. 작가 리즐 라프는 카바레 무대, 독립 연극,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영감을 받은 설치작품이자 퍼포먼스 공간인 ‘클럽 리에종’을 선보인다.

이밖에도 6-7일 아세안파빌리온·중국·뉴질랜드·카타르·영국·핀란드·독일·이탈리아 파빌리온이 개막식을 하고 본격적인 전시 일정에 돌입한다.

스위스는 파빌리온 전시에 참여하는 대신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기획 특별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0월3일부터 5일까지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도래할 공동체를 위한 작은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비엔날레 관객을 프로젝트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예술을 매개로 몰입적 참여 경험을 제공한다. /최명진 기자

토퍼씨와 골목 구석구석 롤리폴리 동구미션투어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까지 광주읍성터를 중심으로 구시청, 충장로, 동명동 일대의 골목을 돌아볼 수 있는 ‘토퍼씨와 롤리폴리 동구미션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요 관광자원인 광주폴리의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골목길과 연계함으로써 동구 골목관광의 재미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미션에 따라 ▲광주폴리 ▲테마골목 ▲관광명소 ▲휴게공간 ▲전망대가 랜덤으로 배정되며, 해당 장소에서 포토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관광기념품을 증정하고, 참여 후기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이며 운영물품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과학관, ‘AI 과학골든벨’ 참가자 20일까지 모집

국립광주과학관이 2024 인공지능 과학골든벨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광주 북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학생과 부모가 한팀이 돼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기술 등 과학상식, 초등학교 과학 교과과정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는 가족참여형 과학문화행사다. 오는 28일 국립광주과학관 본관 필로티에서 현장대회가 펼쳐진다.

광주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과 부모 2인 1팀으로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상위 6개팀에게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며, 골든벨(1팀)을 울린 우승팀에게는 광주북구청장상, 실버벨(2팀)과 브론즈벨(3팀)에게는 국립광주과학관장상이 주어진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국립광주과학관 스포츠 특별전 무료 입장권과 주차권, 참가 기념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최명진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중부, 돈어 길, 이섭대천 이정”

〈213〉육십사괘해설 : 61. 풍택중부(風澤中孚)上

〈中孚, 豚魚 吉, 利涉大川 利貞〉

이른바 역성(易聖)이라 불리우는 고도탄상(高島呑象)은 ‘역이란 인간의 지성(至誠)이 신(神)에 통해 신의(神意)가 서수(筮數)에 감응(感應)한 것이고. 이를 역리(易理)에 의해 풀어내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를 교통하는 것이며, 이는 천지간에 망라(網羅)되지 않음이 없다’고 말했다. 역의 정의에 대한 필자의 생각도 위와 같다.

역경의 육십 한번 째 괘는 풍택중부(風澤中孚)이다. ‘중부’(中孚)는 우리의 가슴에 진실함이 있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뜻이다. ‘부’(孚)는 ‘알 깔 부’로 새가 온갖 정성을 다해 알을 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알에서 깨어나 생명이 움트는 모습은 천지 대자연의 가장 신성하고도 순결한 순간이고 믿음과 진실의 성실함으로서만이 가능한 성스럽고 감동이 서려있는 자연현상이다.

풍택중부(風澤中孚)	中孚, 豚魚吉 利涉大川 利貞	卦 象
	翰音登于天, 貞凶	鳴鶴子和之課
	有孚攣如 无咎	鍋釜得蓋之象
	月幾望, 馬匹亡 无咎	
	得敵, 或鼓或罷 或泣或歌	事有定期之象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靡之	鳴鶴子和之意
	虞吉, 有它 不燕	
택상유풍 중부, 군자이의옥완사(澤上有風 中孚, 君子以議獄緩死)		

중부(中孚)괘는 먼저 상을 보면 가운데가 음(陰)으로 비어 있어 중허(中虛)하고 못택(澤) 위에 떠있는 배(船)가 믿음을 가지고 번뇌를 해탈한 열반(解脫涅槃)의 피안(彼岸)의 경지(니르바나)에 도달한 모습이다.

중부괘는 대괘(大卦)로 대리(大離)의 상이고 64괘 중 대괘의 상은 다음 6괘가 있다. 즉, 지택임(大震), 풍지관(大艮), 천산둔(大巽), 뇌천대장(大兌), 풍택중부(大離), 뇌산소과(大坎)가 그러하다.

대진(大震)	대간(大艮)	대손(大巽)	대태(大兌)	대리(大離)	대감(大坎)
지택임	풍지관	천산둔	뇌천대장	풍택중부	뇌산소과

역의 상경은 순양(純陽)의 건(乾), 순음(純陰)의 곤(坤)에서 시작해 감(坎), 리(離)의 중괘(重卦)로 끝나고, 하경은 상하로 음양이 교착(交着)돼 전도(顚倒)된 함(咸), 항(恒)에서 시작해 감(坎)과 리(離)로 돼 있는 기제(旣濟)와 미제(未濟)로 마무리 했다.

하경을 마무리한 기제와 미제 앞에 리(離)의 대괘인 중부(中孚)와 감(坎)의 대괘인 소과(小過)를 배치한 것은 상경을 마무리한 감(坎)과 리(離)의 앞에 사괘(似卦)로 산뢰이(山雷頤, 離의 似象)와 택풍대과(澤風大過, 坎의 似象)를 배치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산뢰이 내외괘를 각각 바꿔 전도한 괘가 뇌산소과이고 택풍대과 내외괘를 각각 바꿔 전도한 괘가 풍택중부다. 역의 저자의 주도면밀(周到綿密)함에 재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역은 인간이 만든 것인가. 신(神)이 인간과 교호(交互)하기 위해 창조해 인간에게 베풀어 준 선물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중부를 절괘 다음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서괘전에서는 ‘절도가 있으면 믿는다. 그러므로 절괘 다음에 중부괘로써 이어 받는다’고 해 ‘절이신지 고 수지이중부’(節而信之 故受之以中孚)라고 했다. 절제라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을 속박하는 것이므로 규칙 등을 엄중하게 지켜 자신을 절제하면 사람들은 믿게 된다는 것이다.

도의적인 면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절괘는 예의, 예절이다. 예절은 형식만으로는 어떤 힘도 진실도 없는 것이고 마음이 따라가는 진심이 가득 차 있어야 빛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 다음에 중부를 배치했고 서괘전이나 잡괘전에서 ‘절이신지’(節而信之)라 해 중부는 믿음이라고 한다. 이는 중부의 괘상을 봐도 중효(中爻)가 음(陰)으로 중허(中虛)의 상이 돼 속 마음이 비어있는 사심(私心)이 없는 진심이라는 것이다.

중부의 ‘부’(孚)의 글자는 ‘조’(爪)와 ‘자’(子)가 합해진 것으로 어미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뜻이다. 새가 알을 따뜻하게 품는 것은 누구에게 배웠거나 강요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본능으로 가장 진실하게 열심히 욕심없이 자신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새끼를 부화해야 한다는 믿음 하나로 알을 품는 마음이 부(孚)이다. 이것은 자연의 믿음(信)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효는 바깥을 둘러싸고 있고 안쪽에는 음의 유(柔)가 껴안고 있는 알이다. 하괘는 태의 입(口)이고 상괘 또한 도태(倒兌)의 입(口)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상으로 말에 믿음과 신의가 있다는 상의(象意)를 알 수 있다.

중부괘 상하괘 간의 관계를 보면, 하층부는 태괘로 기쁘고 상층부는 손괘로 순조롭게 잘 따른다. 기쁨이 에너지의 원천이고 활력소가 되고 있다. 상층부와 하층부 간에 가로막는 것이 없어서 서로 긴밀하게 잘 통한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한마음이 돼 서로 믿고 신뢰한다’고 해서 ‘중부’(中孚)괘라 한다. 마치 서로 믿고 잘 통하는 부모와 자녀, 선생과 학생, 임금과 백성의 관계와 같다. 어미가 알을 품고 있는 상이고 서로 입을 맞대고 정욕(情慾)이 통해 다가서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의 모습이다. 상·하괘 간의 상을 살펴보면 어미 학과 자식이 서로 화답하고 있는 명학자화지과(鳴鶴子和之課)의 모습이고 솥과 가마가 서로 덮고 있는 과부득개지상(鍋釜得蓋之象)이며 알이 일정한 날이 지나면 깨어나듯이 일들이 정해진 기한이 있는 사유정기지상(事有定期之象)이고 울고 있는 학이 서로 화답하는 명학자화지의(鳴鶴子和之意)의 뜻을 품고 있다.

풍택중부괘(中孚卦)의 괘사는 ‘중부, 돈어 길, 이섭대천 이정’(中孚, 豚魚 吉, 利涉大川 利貞)이다. 즉, ‘중부괘는 믿음이 돼지와 물고기에 까지 미치니 길하다. 큰 하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고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롭다’는 뜻이다.

중부괘는 삼·사효가 중허(中虛)로 비어있고 이·오효가 강중(剛中)으로 효위를 얻고 있어 욕심과 사심(私心)이 없는 성실의 상과 믿음과 신뢰의 괘덕을 보고 단전에서는 ‘서로 믿게 될 때에는 내가 태(兌)로써 즐거워하면 상대도 손(巽)으로 따르게 되는 화합이 있고 그것이 천하에 미치도록 하면 한 나라의 풍속조차도 감화시킬 수 있다’고 해 ‘중부유재내 이강득중 열이손 부내화방야’(中孚柔在內 而剛得中 說而巽 孚乃化邦也)라고 한다.

‘돈어’(豚魚)는 중국에서는 강돈(江豚), 우리나라에서는 돌고래를 말하는데, 돈어는 바람에 아주 민감해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돈어의 입은 북쪽으로 향하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향해 돈어의 입만 보면 바람의 유무와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는 내괘 태구(兌口)가 외괘의 손풍(巽風)을 향하고 있는 상으로, 서로 느껴서 의심하는 일이 없어 부(孚)하고 상응해 길(吉)을 얻는다고 해 ‘돈어 길’(豚魚 吉)이라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큰 하천(大川)을 건너는 것과 같은 큰일을 감행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니 ‘신급돈어야 이섭대천’(信及豚魚也 利涉大川)이고, 중부의 중허(中虛)의 화상(畫象)은 나무를 잘라 만든 배의 모양을 ‘승목주허야’(乘木舟虛也)라 했으며 이것이 이섭대천이라는 의미다. 부(孚)라는 의미는 올바른 도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니 ‘이정’(利貞)한 것이고 이러한 부를 바르게 지키면(貞正) 하늘에 응한다고 해서 ‘내응호천야’(乃應乎天也)라고 한 것이다. 상전에서는 못택 위에 손풍이 있는 것이 중부이다. 군자는 중부괘의 상의(象意)에 따라 대리(大離)의 명찰(明察)과 중부(中孚)의 성신(誠信)으로써 옥사를 의론해 굳이 벌주는 일이 없이 원만하게 사형을 면하여 줌으로써 그 믿음의 부(孚)를 느끼게 하여 갱생하는 도를 가르친다고 해 ‘택상유풍 중부, 군자이의옥완사’(澤上有風, 中孚 君子以議獄緩死)라고 말하고 있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무동(無動)의 중부를 만나면, 점고의 포인트는 정태(正兌) 도태(倒兌)가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점과 중허(中虛)의 상이다.

서로 태구(兌口)를 접한다는 점에서 서로 친화(親和)하는 상으로, 서로 마음을 열어 말하고 성의를 다하는 것이므로 상담 등에 특히 길점이고 서로 의기투합(意氣投合)해 공동의 일 등에도 좋다. 하지만 서로 입 맞추고 있는 상이어서 이성 간에 색정(色情)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대리(大離)의 상을 보면 표면의 화사함으로 좋아 보이지만 내실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상하 모두 이양(二陽)의 외면으로 내면을 덮고 있어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 등을 읽어야 한다.

운기, 운세는 무슨 일에서든 자아를 절제하고 화합과 성신(誠信)으로 남과 친해져 가면 호조(好調)를 얻는다. 사업, 계획 등은 겉모습을 위장해 거짓말을 하거나 아픈 곳을 숨기거나 하지 말고, 정직하게 들어내어 협력을 상담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아무리 침체해 있는 일이라도 성신으로 열심히 하면 호전(好轉)시킬 수 있고, 사업의 상담은 이뤄진다. 지망 등 바라는 바도 진심으로 밀고 나가면 이뤄진다. 교섭, 담판, 거래 등은 이루어지나 내실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고, 내심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약하여 속내를 잘 살펴야 한다. 이전은 착오가 있고 사양(四陽)이 이음(二陰)을 품고 있는 상에서 주위에 큰 집들이 있고 종일 햇빛이 들지 않으며 바람도 안 통하는 곳이다. 매매는 사이좋게 이뤄진다. 물가는 보합이나 육변서에서 삼·사효의 효괘(爻卦)에 이괘(離卦)를 배치되면 급등이 있다. 혼인은 명학자화지상(鳴鶴子和之象)으로 서로 바라봐 길하다. 잉태는 내외가 마주보고 있어 부부의 화목은 좋으나 너무 좋아서 오히려 자식이 없는 중허지상(中虛之象)이고 임산에 임박해 이괘(離卦)를 얻으면 평산으로 태아는 여아이다. 병은 대리(大離)의 상으로, 심장병, 대열, 변비, 강한 열병 등으로 급성이면 쾌유가 어렵다. 기다리는 것은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온다. 가출인은 정사(情死)의 상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나갔거나 정을 나누는 일이 곤란해 도망갔다. 분실물은 습득자가 숨기고 있어 찾기 힘들고 물건을 두었던 곳을 잊어버렸다.

날씨는 바람이 불어 흐리거나 오랜 기간 큰 더위가 있다.

〈동인·도시계획학박사(062-654-4272)〉